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구역 나눔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각 교실
찬양예배	월 1회, 토요일	음대 강의실 217호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주일 예배 봉사위원

	07. 26	08. 02	08. 09
대 표 기 도	황희순 집사	정용현 집사	이수현 집사
성 경 봉 독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헌 금 위 원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안 내 위 원	박재기 집사	한명희 집사	한명희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성경 읽기 - 영의 양식으로 삼시다(눅5~18장)
2.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손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3. 주일예배-정해진 시각에 있는 곳에서 예배에 동참하십시오. 대면예배 참석에 힘쓰시기를 권면합니다.
4. 나눔의 시간은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교우동정

생일	윤석진 형제(20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영향으로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기쁨을 나누는 교회(빌2:28)”



교회창립 | 1983년 10월 23일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515장 다같이
 기 도 Gebet 박재기 집사
 성경봉독 Predigttext 삿 11 : 34 - 40 (구p383) 이상호 목사
 설 교 Predigt (Richter 11:34-40) 기본에 충실한 삶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516장 다같이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황희순 집사

인생의 뒤편길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늘 저편에서 자기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서 새겨진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일 때가 많았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였습니다. 그는 그것이 마음이 걸려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하면 항상 저와 함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은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해주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았단다 네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나 평안한 시절 너는 나를 거절하고 혼자 걸어갔기 때문에 네 옆에서 걸었기 때문에 두 쌍의 발자국이란다.’

생명의 삶 편집부 제공

